

현대적인 보통강강안주택구건설 착공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또다시 현지를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건축발전구상과 인민대중 제일주의건축리념이 구현되어 현대적으로 일떠세워지는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구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또다시 공사장현지를 돌아보시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강안의 명당자리에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구를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화되는 또 하나의 보람찬 건설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본격적인 건설전투에 진입하기 위해 현장을 차지하고있는 시공단위들의 전개모습을 돌아보시며 시공분담구역을 료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800세대 다락식주택구건설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는 대상건설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건설단위들에서는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앞으로 수도건설과 지방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민족성과 현대성의 정확한 배합에 기초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도시경영 및 환경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원림특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인 주택건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평양시 5만세대 건설과 함께 지방건설에서도 변혁적인 실천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우리 당은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내에 주택 및 도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핵심 건설단위들이 대상건설을 맡은것만큼 자신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사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건설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며 설비와 자재보장을 철저히 실천하고 단위별 정치사업과 경쟁조직 사업을 장려하여 속도전, 실력전에서 도시 주택건설의 본보기적경험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건설공정들에 대한 엄격한 감독사업을 실시하고 요구성을 높여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하며 좋은 건설경험들이 수도건설부분에 일반화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주택구 주변 원림설계를 잘하고 보통강반의 공원들을 보다 훌륭히 꾸려 주민들의 생활에 최대의 편의를 보장해주며 자연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보기 좋은 다락식주택들의 류형별특성과 립면형성요소들이 특색있게 잘 살아나게 건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당면한 올해의 수도살림집건설계획들을 훌륭히 완수하여 사회주의문명의 중심지로서의 우리 수도의 현대성과 주체적인 건축발전면모를 과시하고 그 어떤 세기적 변혁도 이룩할수 있는 우리의 무궁무진한 상상정신적위력과 굳건히 다져지고있는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영과 생태환경부문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하여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물질문화적복리를 제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800세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에 참가한 전투력있는 핵심건설단위들이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수도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이 손꼽아 기다릴 행복의 보금자리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인민이 산다

봄빛이 짙어가는 4월이다.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아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거리들을 거닐어도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숨엄히 안겨온다.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온 강산에 차 넘치는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은 만경대로 달리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태양의 성지인 만경대.

만경대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이께서 탄생하신 추녀났은 초가집앞에서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지난날 지주의 묘지를 봐 주기로 하고 얻은 산당집, 해방전 이 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초가집과 변변치

못한 짚그릇들, 쭉그리진 독과 농병들은 어제날의 가난의 흔적을 엿보게 한다. 이런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셨다.

어제날 천대받고 멸시받던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후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적시책들을 련이어 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주력문제해결에 온전하게 관심을 돌리셨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되는 제일 귀중한것이 집, 보금자리이다.

해방전 우리 겨레는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이나 초가집에서 살면서 모진 고생을 다 겪었다. 해방후 인민의 새 세상이 펼쳐져 창조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속에 살

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침략세력에 의해 강요된 3년간의 전쟁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은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침략자들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수많은 가옥들도 파괴되게 되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시며 불비싸아지는 전화의 나날에 평양시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주들의 하나를 마스면 우리는 열, 백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날 강남요업공장을 찾으시어 평양시복구건설에 필요한 벽돌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전후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 주시려는것이 수령님의 뜻이고 의지였다.

하지만 반당반혁명공분

자들의 해독행위로 말미암아 전후 3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이 토굴집이나 반토굴집에서 그냥 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설부문의 이러한 실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주제47(1958)년 1월 어느날 수도의 도시설계를 맡은 일군들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날에는 건설부문 로동자들을, 그 다음날에는 시안의 건설부문 지도일군들을 만나주시면서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더 지을수 있는 예비도 찾아주시었다.

이렇듯 그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단 한해사이에 평양시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이 일떠서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을 안겨 주시려는 그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은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도 뜨겁게 어려웠다.

청진과 함흥, 안주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건설총계획도들을 세심히 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마음쓰시고 몸소 오곡리의 건설주가 되시어 도시부립지 않는 문화주택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기 편리하면서도 문화적인 집을 지어줄수

있을가 하고 언제나 마음쓰시었다.

주제49(1960)년 8월말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해기슭의 길변에 자리잡은 어느 집을 찾으시었다.

당시 그 집은 어느 한 기업소에서 사무실 겸 침실로 이용하던 건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집의 내외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고나서 집주인에게 집을 어떻게 지으시어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물어주시었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집을 빌탈진 산밭에 규모있게 지어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높은 부모들을 모시고는 가족들에게 주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집설계를 떠서 좀 더 연구하여 가지고 일반화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평범한 한 로동자가 지은 집을 보시고도 인민들에게 쓸모있는 살림집을 더 좋게, 더 빨리 지어주시러 이렇듯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무엇을 어떻게 지었으며 그것을 짓는데 얼마만한 로력공수가 들었는가가 세심히 알아보신 자애로운 어버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기에 어느

한 협동농장에 나가시어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진회의에서 문화주택건설문제를 토의하겠다고 하시면서 손수 흰종이우에 연필로 표준문화주택의 설계도까지 그려보이시며 일군들을 가르치시었고 어느 한 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한 건축가를 부르시어 농장의 지형을 손수 그려주시며 농촌건설총계획을 설계해보라고 친히 과업을 주시기까지 하시었다. 또 어느 한 농장의 살림집을 찾으시어는 로인들이 힘들어하고 갑갑해질것까지 념려하시어 문턱도 낮추고 피창도 내주라고 하시었고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온돌방에서 지내는것을 좋아했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에 새 로 일떠서는 다층살림집에 구들을 놓도록 하시고 화력발전소가 선 다음에는 집집에 온수난방을 실현하도록 하시어 수도시민들이 한겨울에도 따뜻한 집에서 살도록 해주시었다.

인류가 지구상에 첫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건설역사를 기록해오셨지만 과연 언제 누가 근로하는 인민을 이처럼 귀중히 여기고 아끼며 마음쓴 레가 있었던가.

그것은 오직 만경대의 추녀났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한평생을 근로하는 인민들

속에 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그의 인민사랑속에 날로 꽃피어나는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노래에 담아 불렀다.

여보소 동무네들 말씀 좀 물음시다

여기 있던 집들중에 삼몰이라 살았는데

고층건물 출렸으니 어찌간지 아시나요

아하 알구말구 저기 보이는 보통강기슭에

구름뽕고 솟아오른 천리마거리 삼호동에 이사했소...

아하 그렇지 그래 저기도 새 집 수령님은덕으로 웃음꽃이 만발했네

어허 어허허 열싸 좋네 어허 어허 우리 살림 열싸 좋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천만 로고와 끝없는 심혈속에 평양시에만도 천리마거리, 영광거리, 금성거리, 비파거리, 승리거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평양시 인민의 행복과 문명이 이 땅위에 날로 꽃피날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락원거리, 창광거리, 문수거리, 안상택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를 일떠세워주시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시었다.

오늘 공화국은 더욱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평양시에만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조치에 의해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가 일떠서고 수많은 과학자, 교육자, 사무원,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주민들이 당당한 새집을 돈 한푼 안 내고 받아안은 행운을 지니었다.

지난해에는 뜻밖에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수많은 마을과 살림집들이 피해를 입고 무너져내렸으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손길에 의해 모두가 덩실한 새 집들을 받아안고 피해지역들마다 새집들이경사가 련이어 펼쳐지었다.

그런데도 주신 사랑 부족하신듯 5개년계획기간 평양시에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어디 이뿐인가. 얼마전에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도 하시었다.

그 감동깊은 연설에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따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든 보금자리, 리상거리. 청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사업을 언제나 첫차리에 놓으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어 나날이 더욱 훌륭한 보금자리들에서 사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절세위인들의 파사로운 손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이 나라 천만가정을 포근히 감싸주고 행복을 지켜주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세계의 인민들의 인민사랑의 손길 아래 변모된 수도 평양의 일부

위민헌신의 새벽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기 위해 바치시는 헌신의 날과 날들에는 가슴뜨거운 새벽에 대한 이야기들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새벽은 누구나 단잠을 자는 시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이신들 어찌 새벽의 단잠이 그리질 않으랴.

그러나 자신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하시고 인민을 위하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오는 새벽, 눈내리는 새벽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인민들과 최전연초소들, 국방과학자들을 찾으시어 수만리 현지지도길을 쉬임없이 걸으신다.

원수님의 새벽길. 그 새벽길은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그들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민위천의 뜻과 강국건설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이어가시는 절세 위인의 성스러운 자욱이었다.

14살 어린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뜻을 품으시고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새벽길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그렇게 맞고 걸으신 새벽길에서 《E.C.》와 《조국광복회10대강령》이 태어나고 보천보의 불길에 타올랐으며 마침내 조국해방의 새날은 밝아왔다.

조국이 해방된 다음에도

주석님의 새벽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새벽길에는 단잠을 자는 사람을 깨우면 곤해할때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시며 관이슬로 녹녹히 젖은 짚단을 마당가에 펴고 보내신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의 새벽길을 비롯하여 진눈깨비 날리는 공장의 구내길, 농장의 포전길도 있으며 조국통일을 위해 걸으신 헌신의 새벽길, 애국의 새벽길도 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순간의 휴식도 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을 집무실에서 보내시고 전선길에서 맞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새벽길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가.

어느 겨울 새벽 자강도에 도착하시자마자 낮과 밤, 새벽을 이어가시며 20여개 단위를 련이어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새벽강행군에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언제인가 자신께서는 한생 어버이장군님의 혁명방식, 생활방식을 따를것이며 이제 부르는 장군님을 대신하여 조국의 첫 새벽문을 열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오늘 공화국이 제국주의의 그 어떤 침략도 막아낼수 있는 최강의 전쟁억제력을 가진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고 부강조선의 찬란한 려명을 마중하고있는것도 경애하는 원수님 걸으신 조국수호의 새벽길들에 마련되고 펼쳐진 것이다.

어느 한 시인이 격조높이

노래한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결출한 령도, 회색적인 헌신의 그 밤, 그 새벽, 그 아침이 있어 반만년민족사에 대서특필할 기적적인 승리와 사변들이 기록되었으며 공화국과 국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으시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자욱마다에는 얼마나 많은 무수한 새벽일화들이 빛나고 있는가.

주제102(2013)년 10월 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련이어 걸으신 새벽길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그의 열화같은 헌신의 세계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0월 4일 한창 진행되고있던 미림승마구락부건설장에 도착하시었을 때는 새벽 3시경이었다.

일군들은 너무나 뜻밖이어서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였다고 한다. 불과 몇시간전인 10월 3일 깊은 밤 그이께서 이곳을 찾으시어 건설정형을 료해하시며 지도 해주셨기때문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었으니 놀라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졸전에 자신께서 여기에 와서 봉사건설을 돌아보고 건설을 거칠게 한데 대하여 되게 비판하였는데 그대로는 잠을 이룰수 없어 다시 왔다고, 자정이 떠 지났지만 건설대상들을 돌아보면서 부족점을

지적해주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려 한다고 하시며 앞장에서 먼지가 이는 건설현장을 다시금 돌아보시었다.

이렇게 순간의 휴식도 없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헌신의 길은 그 다음날에도 또다시 이어졌다.

자정이 지난 10월 5일 새벽, 한 일군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벽에 눈물물놀이장건설장에 나가보려 한다고 하시었다.

순간 일군의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고이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안겨주시려는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시던 이렇듯 또 한밤을 요박 밝히신단 말인가.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 새벽길들을 그리도 많이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이다.

여로부터 새벽문을 남면저 여는 사람에게는 오복이 차례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나라의 새벽문을 제일먼저 여시고 그 누가 걸어본적이 없는 초행길을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와 맞바꾸어 온 나라 인민이 세상의 천만복을 다 받아안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헤쳐가시는 불멸의 애국애민의 새벽길들이 있어 이 땅에는 행복의 려명, 기쁨의 아침이 환히 밝아 오고있으며 인민이 부르는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이 습관만은 일생을 두고 고치지 못할것 같다고 하시며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주제51(1962)년 4월이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축원하는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수령님의 휴식을 보장해드리기로 결정하였었다.

하지만 집무실이 바뀌었을뿐 그이의 사업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담당한 일군이 보다못해 그에게 간절히 말씀드렸다.

《어버이수령님, 밤늦게까지 일을 보시는데 새벽부터 일하시는것을 좀 삼가하여주시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몸에 배인 습관이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 양해를 구하듯 교시하시었다.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그 말씀에 일은 생각이 깊어졌다.

마치도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듯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감회깊은 어조로 지난날을 추억하시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것은 오랜 생활과정에 굳어진 습관이라고, 산에서 싸울 때 적들은 꼭 새벽에 습격해오곤 했고 그렇게 되니 부대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이 어떻게 마음놓고 잠수 있었겠는가고, 그때부터 새벽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방이 되니 벅찬 일들이 기다리고있었고 그래서 새벽이면 또 잠이 오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이고 전쟁이 끝나자 복구건설이 시작되고 이어 천리마대교조가 시작되었었고, 결국 생활은 나에게 아침에 편안히 누워있을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되어 굳어진 습관이

라고. ...

순간 일군은 눈시울이 뜨거워울랐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아마도 자신께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 습관만은 일생을 두고 고치지 못할것 같다고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이 다시 울려왔다.

일군은 추추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며 마음속으로 정중히 아뢰었다.

(수령님, 이제라도 그 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의 그 습관을 어찌 이 땅의 평범한 인민들이 그리고 일군들이 사업과 생활속에서 몸에 배인 습관이란 말과 나란히 할수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습관에는 조국과 혁명, 인민앞에 지니신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이 어려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수령님께서서는 이 습관을 한평생을 두고 고치지 못하시었던것이다.

본사기자

다함없는 몸의 마음을 다함

유화 《목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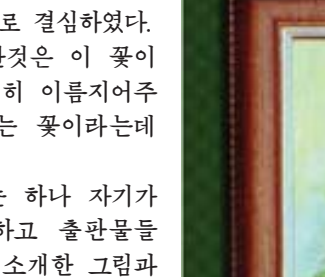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주제 73(1984)년 4월 주제사상국제연구소사였던 주제사상연구 원관드정국위원회 위원장과 그 가족일동이 울린 선물이다.

그는 위대한 주제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사상리론의 영재로, 세계혁명의 걸출한 수령으로 우러르며 무한히 존경하여왔다. 하기에 그는 수령님께 어떤 진정어린 선물을 올릴것인가를 두고 여러모로 생각하던 끝에 우리 나라의 목란꽃을 형

상한 유화를 마련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이렇게 결심한것은 이 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이듬지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꽃이라는데서부터였다.

그는 비록 서툴기는 하나 자기가 직접 그림을 결심하고 출판물들을 통하여 목란꽃을 소개한 그림과 사진들을 수많은 수집하였다. 그리고는 몸을 들어 묘사방법을 숙련한 채 기초하여 안해가 마련해가지고온 천 천에 유화구로 목란꽃을 정성껏 그리었다.



본사기자

합당이나, 흡수나

남조선에서 보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의 합당문제가 여론의 물망에 오르고있다고 한다. 보충선거를 위한 야권후보 《단일화》를 하더니 합당이라? 하지만 합당은 말뿐이고 서로의 이해관계만 내세워 대립과 양투만 벌리고있다고 한다.

합당이나, 흡수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사이의 합당에서 기본론점은 합당방식문제이다. 이에 대해 얼마전 남조선 언론 《해발드경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의 당으로 온전히 통합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7서울시장보궐선거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부쩍 가까워졌지만 물밑에선 상대를 향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서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합당을 요구하고있다. 저들

이 중도를 대표하는만큼 당 차원에서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보논바와 같이 당 대당인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되어 들어가는 가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서의 당 대당방식은 코끼리가 개미와 손잡는 식으로 어찌 구나없다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저들도 당당한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고 우기고 있는셈이다.

세계를 휩쓸고있는 악성전염병사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재난을 가져다주고있다고 한다. 악성전염병사태의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되고 민생은 극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빛을 감지 못할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대량적으로 늘어났으며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의 빛은 전체 경제규모의 2배를 넘는다 고 한다. 서울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 하나가 폐업을 고려하고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경제가 휘청거리니 물가는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그러니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욱 궁색해지고 인심마저 메말라가고있다는 것이다. 남조선통계청은 얼마전 최근 1년내에 실업자가 된 사람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하였다.

민생은 도란에 빠졌는데...

악성전염병사태로 숙박,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24만명이나 줄어들어 2009년 6월 통계작성 이래 역대최소 폭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특히 올해 들어와 경제 위기로 20대, 3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약으로 기록되고 실업률은 25.1%로 높아졌다고 한다. 한편 농수산물과 공업품의 물가도 닥쳐온 연속 올라 사람이 아우성치고있다. 그런 속에 《삼포세대》, 《N포세대》로 불리우는 청년들은 결혼, 출생, 《내 집 마련》 등을 포기하고 지어 생을 포기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혼인감소율이 49년만에 최대폭이다. 1월 출생률은 1년전보다 6.3% 줄어 들었고 지난해 한해동안 태어난 신생아수도 2001년과 비교해 절반이 채 안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값상하위격차는 무려 160여만US\$까지 벌어져 저소득층과 갖

결혼한 젊은 층이 서울에 집을 사는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남조선주민들은 일할 의욕과 희망을 잃고 하루하루 고된 시간을 보내고있으며 주민의 40%이상 이 우울감을 느끼고있는 속에 지난해 자살을 시도한 주민은 2만 2 5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보는것처럼 남조선에서 민생은 도란에 빠져있다. 하지만 이른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인민들의 극심한 생활난은 아랑곳없이 권력쟁탈을 위한 놀음에만 눈이 멀게 돌아쳐 민심의 저주를 받고있다. 옛 성구가 있다. 나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인민들이야 죽든살든 저들의 이익만을 위해, 권력욕을 위해 매일과 같이 싸움질만 벌리는 사비비정치가들이 활개치는 세상에 백성을 위한 정치가 과연 존재할수 있겠는가. 본사기자 김 광 혁

배 주고 속 빌어먹는 신세

《국민의당》 대표의 신세가 참 가련하다. 야권 《단일화》에서 패배한 후 제판에는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지지》를 구걸하고있다고 한다. 지어 《국민의힘》 후보가 없는 속에서도 선거유세에 참가하는 등 열성을 발휘하였다고도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 부터 받은 대접은 무엇인가. 남조선의 한 언론은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후 《신발 끈을 고쳐매겠다》, 《시대가 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내부에서 《당을 접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데 대해 전하였다.

권력을 위해 간에 불고 설에 불는 체제도 돼보고 《태극기 세력》까지 끌어안겠다고 추파도 던져보고 나중에는 《시대가 준 소임》을 운운하며 《국민의힘》의 노복노릇도 하지만 보는 눈길에는 여전히 경제 실미가 비껴있는 것이다. 배 주고 속 빌어먹는 신세. 그것이 《국민의당》 대표의 처지라고 할수 있다. 본사기자 전 명 진

《동상이몽》



《갈등의 씨앗을 잉태한 시한탄》

그나저나 권력의 자리를 놓고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시정배들이 합당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가소롭다고 해야 할 것이다. 뿌리도 다르고 결어은 길도 판이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이불속에 든다는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권력야심에서는 서로 한자울에 울러놓아도 기술지 않을 무리들이기때문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언론은 《(국민의힘)과 (국민

의 당) 사이의 협력관계가 뜨겁다. 그러나 (국민의힘)내에서는 단일화를 계기로 제1야당안으로 진입해 야권전체를 품으려는 안철수의 정치적야심에 대한 경계심도 감지된다. 그 연장선에서 가까스로 피워올린 범 야권대통합의 불씨가 4.7개 보선 이후 불꽃튀는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평하였다. 다른 한 언론도 보충선거

이후 보수의 주도권을 틀어 쥐려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야권통합시도가 충돌하여 양측간 동상이몽도 수면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있다. 전문가들이 만에 하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도리어 《야권분열을 잉태할 시한탄》이 될것이라고 평하는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전 명 진

《선거전이 진흙탕싸움으로 되었다》

남조선에서 보충선거를 며칠 앞두고 여야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있다. 그중에서도 여야후보들사이의 선거공약대결은 민심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있다. 남조선의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 시민사회단체는 얼마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보충선거와 관련한 여야당들의 선거공약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경쟁적

으로 대량의 주택공급계획을 제시했지만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서울시에서 5년내에 수십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것은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면서 《과도한 주택개발공약으로 서울시전역이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시하고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여야의 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은 《서울시장선거동안 실현할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것》이라고 까맣했다고 한다. 부산시장보충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부산시장선거공약은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제활성화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 두 후보는 모두 가덕도신공항후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 공항건설을 고려한 현실적문제에 대한 고민과 해법은 빠져있다.》고 평하였다. 선거공약대결은 그대로 상대방후보에 대한 비난전으로 이어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김 혜 성

이해 남조선언론 《시사저널》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7보충선거에서 여야 후보간 비난공방이 가열되면서 정책대결은 사실상 실종됐다. 거칠어진 막말공세속에 정작 가장 중요한 공약은 멀어지고있는 형국이다. 아울러 여야후보들의 공약이 임기동안 실현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약재탕, 혹은 급조한채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있다. 이번 선거는 흑색선전에 감정적인 막말은 물론 고소, 고발도 범람하는 모습이다. 상대후보의 공약을 따져보고 내 공약을 지킬수 있을지 점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있다. 토론이나 선거유세는 국민한테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그마저도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양상이다. 선거전이 진흙탕싸움으로 전변되었다.》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권력쟁탈을 위한 사기협잡과 싸움질로 날을 보내는 정계에 대한 남조선인민의 비난은 날로 높아만 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혜 성



굴욕적인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대통령》 자리를 꿈꾸고있는 인물들사이의 세력다툼이 심해지고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국민의당》 대표, 현 제주도지사는 물론 정계에서 밀려났다가 복귀를 선언한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이 속한다. 이들은 지금 《5년간의 런 페를 끊고 승리하는 정당이 되자》, 《서울교체가 정권 교체》, 《야권의 혁신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것이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서울과 부산의 보충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민심의 지지를 받아 다음

기 야당의 《대통령》후보 자리를 따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전문가들은 권력을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흠 그 서울시장후보경쟁에서 《국민의힘》후보에게 패한 후 《대선》에 나가기 위해 정치적계기를 모색하고있지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느 한 방송과의 대담에 《두 후보 모두 경쟁적

표는 어느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한 인물에 대해 《당 일각에서 리명박, 박근혜 정권당시 적폐청산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벌써부터 경제가 시작된 보수 세력내부에서 이제 《대통령》후보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지던 갈등과 대립, 비방이 격화되고 리합집안이 거듭될것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위해 개싸움도 서슴지 않는 보수파들의 뿌리깊은 정치악습은 죽어도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개탄하고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

《죽어도 고치지 못할 병》

집배기, 비방과 흑색선전, 정치적모략도 서슴지 않는 악습이 체질화된 남조선정치판에서는 《상식적인 정치공식은 통하지 않을것이다.》고 예언하고있다고 한다. 그 징후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간첩수》로 불리우는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

표는 어느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한 인물에 대해 《당 일각에서 리명박, 박근혜 정권당시 적폐청산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벌써부터 경제가 시작된 보수 세력내부에서 이제 《대통령》후보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지던 갈등과 대립, 비방이 격화되고 리합집안이 거듭될것이라고 하면서 권력을 위해 개싸움도 서슴지 않는 보수파들의 뿌리깊은 정치악습은 죽어도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개탄하고있다.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

일본은 어디로 가고있는가

얼마전 일본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22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교과서를 검정했다고 한다. 거기서 통과된 역사과목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고유의 령토》 등의 변변스러운 내용이 대량 실렸다고 한다. 일부 교과서에는 일본군성노예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본의 령토팽창야망, 령사외교책동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실례이다. 해마다 2월이면 시마네현에서 《다께시마의 날》이라는 광대극을 벌여놓고 조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여기저기 들쭉시며 분주함을 띄워대는 일본당국이다. 곳곳마다에 조선민족의 독도를 저들것이라고 선전하는 《령토, 주민전시관》 같은것을 세워놓고 일제의 치명적인 범죄의 산물인 일본군성노예를 《자발적매춘부》로 오도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조선민족혐오사상, 적대시사상을 고취하고있다. 어떻게 하나 독도를 대륙침략의 징검다리,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재침략야망과 아시아대륙을 퍼문은 군화발로 짓밟던 과거를 그리며 령

도팽창야망에 들뜬 군국주의후예들이다. 간파할수 없는것은 령사를 외곡, 날조하다 못해 천진한 아이들에게까지 퍼로 얼룩진 령사를 미화분식하여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입시키고있는것이다.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군국주의후예들의 창조품,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령토》라고 날조한 령사교과서가 바로 그 실종이다. 사진기와와 같은 아이들의 눈동자에, 뇌리에 날강도적이 침략적인 군국주의정신만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대륙침략에 광분하다 《사쿠라》꽃처럼 《우쇄》하여 야스구니진자에 《훈》을 묻은 조상들처럼 자라나는 아이들도 군국주의광신자들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날조한다고 달라질

수 없는것이 령사이다. 령사는 활자화된 글이 아니다. 진실을 정의로 새긴 교과서이다. 거기에는 민족의 령사와 전통, 과거의 교훈과 함께 미래의 방향도 제시된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을 이 어놓으면 그 연장선에 레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당국이 통과시킨 고등학교교과서를 보면 허황한 령사자료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군국주의복수심과 령토팽창야망을 심어주려는 심나라족속들의 흉심이 담겨져있다. 도대체 일본은 어디로 가고있는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도 반성도 없는 지금의 행태를 보면 령사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일본의 앞날이 보인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침략 역사를 외곡하고 잔미한 령사교과서들

《문화통치》의 가면을 쓰고

3.1인민봉기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1919년 8월 종래의 헌병경찰제인 《무단통치》를 《폐지》하고 이른바 《문화통치》를 한다 고 세상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한 조선민족의 반일감정을 누르고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었다. 일제의 《문화통치》는 종래의 통치방식을 보다 교활한 통치방식으로 바꾸어놓는데 불과한것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무단통치》와 다를 바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문화통치》에 대하여 떠들면서 그의 침략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하여 가지가지의 흥책을 다하였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5개월후인 1919년 8월 19일 일제는 마치 조선사람들에게 그 어떤 《동정》과 《자비심》이라도 베푸는듯 왜왕의 이름으로 《조선총독부관제개혁》에 관한 조서》를 발표하였다. 뒤이어 8월 20일에는 마치 《새 정치》라도 실시하는 듯이 가장하면서 《조선총독부관제개혁》을 다시 선포

하였다. 일제는 《관제개혁》에서 종래 조선총독으로 현역육군대장이던것을 문관도 할수 있다고 하였으나 한번도 문관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 해군대장이었던 사이토를 다시 복대시켜 사복을 입힌 다음 조선총독의 자리에 앉혀놓았다. 일제는 《조선총독부관제개혁》에서 종래 조선총독에게 위임하였던 육해군통솔권을 지위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상일뿐 총독은 임의의 경우 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육해군사령관들에게 무력을 사용하게 할 권한을 가지고있었다. 한편 일제는 《관제개혁》의 막뒤에서 경찰총감임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종래의 《경무총감부》(헌병경찰본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새로 내왔으며 이에 준하여 각 도에는 경무부내선 경찰부를 새로 내왔다. 경무국을 총독부에 직속시키고 이에 따라 지방경찰관을 《도지사》들의 관할하에 넘겨준것은 앞으로 《경찰정치》를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각 분야에 전반적으로

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투시키려는 기도에서 나온것이였다. 이러한 기구개편에 의하여 종래의 헌병경찰제도는 보통경찰제도로 개칭되었으나 이것은 헌병경찰제도의 약화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새로운 강화를 의미하였었다. 일제는 헌병경찰제도에 대한 조선민족의 반감을 누르기 위하여 헌병대를 경찰에서 분리하여 그것대로 령령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 막대한 금액을 밀어넣어 대폭 강화하였다. 일제는 경찰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이고 일본본토에서 가장 악질적인 현역경찰인들을 조선에 끌어들여 더욱 보강하였다. 특히 일제는 조선의 애국자들을 비밀리에 탐지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이른바 《사상범》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등계》를 중설하고 그를 통한 비밀수찰을 강화하였다. 그리고는 다스라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선사람들에게는 각종 《죄》를 들춰워 무조건 체포수감하거나 《결핵처분》하였다.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통치》의 가면은 날이 갈수록 벗겨졌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반일 투쟁을 말살하고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1925년에 약명법은 《치안유지법》을 공포시시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진보적단체를 조직하는것은 물론 공산주의사상을 담은 서적을 읽기만 하여도 가혹한 형량을 받아야 하였다. 또한 《예방구급》이라는 제도를 두어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징역기간을 마친 사람이라도 그가 공산주의사

상을 버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를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고 얼마든지 가두어두며 사형까지 할수 있게 만들었다. 일제는 이것으로도 성취치 않아 1929년에는 보다 극악한 파쇼악법인 《신치안유지법》이라는것을 공포하고 조선사람들을 다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간판을 바꾼 《문화통치》로 보다 악독하고 조직화된 식민지독일정체를 실시하면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탄압학살하였다. 본사기자 주 광 일



공판정에 끌려가는 민족운동자들

양양부문의 본보기 평양메기공장

◇ 평양메기공장은 공화국에서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되고 있다.



◇ 동평양지구의 명당자리에 공장터전을 잡아주신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메기공장」이라고 공장이름도...



본사기자 황금숙

꽃피는 봄날이 두 표정

이제는 봄빛이 완연하다. 거리들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마냥 즐겁게 해주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벌어질...

추억은 제2의 인생이고 로 년기는 추억에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내 나이 올해 72살이니 제2의 인생속에서 사는 시기라고 할수 있다.

나의 행복이 말해주는 삶의 진리

어금 이토록 나날이 짧아만지 게 하는것인가 하고 생각하느라 내 나날이 짧아만지게 하는것인가 하고 생각하느라...

광광만류항감람제품들

조선서해의 광광만에 수백만t 매장되어있는 감람은 류항량이 풍부한 감람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광광만류항감람에는 18종의 필수아미노산...



본사기자

보람넘친 생활을 시에 담아

조종공-나의 작은 줄안엔 마우스 하나가 쥐여져있어도 온 공장을 보살피는 신비한 힘이 있다. 빨강고 파랑고 노란 신호등들이 나의 「지휘」를 받아 저마끔...



문학통신원 리혜경 (가운데)

실리있는 교육지원프로그램들

교육발전에서 정보기술수단들이 노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식전수형의 교육으로부터 가상현실기술, 증강현실기술, 인공지능기술과 같은 현대적인 정보기술이 리용될...



본사기자 림광훈

평양강의 봄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 마라손녀왕 정성욱



정성욱은 제7차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서 1등을 쟁취하고 공화국기를 휘날렸다.

꿈을 안고 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않았다. 1999년 에스파냐의 세빌라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는 200여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2 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20세기의 마지막 마라손경기였다.

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는 이악하게 달리달려 제일먼저 결승선에 들어섰다. 세계육상계를 놀래운 그는 승리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리며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내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고 긍지높이 대답하였다. 정성욱은 공화국영웅이며 인민체육인이다.

4월의 절기에는 청명과 곡우가 있다. 청명은 하늘이 점차 맑아지는 절기라는 뜻이다.

을 비롯한 집수리를 진행하였다. 곡우는 곡식이 자라는데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절기이다.

중시하였던것을 말해준다. 곡우에 우리 선조들은 벼, 조, 고구마, 참깨 등 작물의 씨를심음 진행하였다.

4월의 절기와 민속

청명날의 대표 음식으로 쉬우며, 청포 무침과 고사리, 고비, 두릅, 참나물 등으로 만든 산나물 무침을 들수 있다.

이 시기는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농사일로 바쁜 날들을 보내었다.

올해의 청명은 4월 4일, 곡우는 4월 20일이다.

사시절 피어나는 《코스모스》

붉은색, 분홍색, 흰색, 붉은보라색... 꽃잎들이 다지는 늦가을에도 청신한 꽃잎을 펼치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아름다운 색깔과 그윽한 향기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한철 피었다가 지는 것으로 하여 아쉬움을 남긴다.

《이 브로치가 정말 곱구나. ... 보기 어때요?》 《차림새와 아주 잘 어울려요. 내가 고른것보다 더 세련된것 같아요.》 자기들이 고른 《코스모스》 브로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들과 몸매에 어울리는 머리핀을 달아보며 활짝 웃는 처녀들...

에 설레이는 코스모스를 보면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여성들의 기호품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공화국의 여성들이 즐겨 찾고 애용하는 기호품 《코스모스》는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후 평양일용품공장에 여성들의 머리핀을 생산하는 머리핀직장이 새로 생겨나게 되었으며 상업봉사망에서 갖가지 아름답고 고운 머리핀과 브로치를 여성들에게 봉사해주고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속악기 - 흔들북과 박

◆ 력사자료에 의하면 흔들북은 고구려시기부터 사용되었다. 흔들북은 북통의 양면에 가죽을 메우고 옆면 양쪽에 짧은 끈을 매고 그끝에는 구슬 같은것을 하나씩 매달았다.



봄철에는 춘곤증이 온다. 이때에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졸음이 오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진다. 정력이 떨어지고 어깨가 빠르며 심하면 감기에 걸린것처럼 몸이 편안치 않다.

고려의학에서는 춘곤증을 봄철에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인체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화되는것으로 설명한다. 봄철에 의사가 보약을 권하는것도 이와 관련이 된다.



고구려화가 담징 (2)

글 리성덕, 그림 김운일

담징이 망망한 바다를 건너 범포사로 온것은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담징은 벌써 서른살전에 불교경전에 능통하고 미술은 물론 채색과 종이, 먹제조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유명한 학자, 예술가, 기술자로 인정되었었다.

소나무수림속으로 천천히 저너늘빛이 스며들고있었다. 감빛노을을 등뒤에 받으며 승려 한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있었다. 키낮은 잡목목을 헤치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담징의 깊은 생각을 깨뜨릴가보아 매우 저어하는 기색이었다.

오늘도 범정은 왜승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금당벽화를 그리겠노라고 약속한지도 한해가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손에 붓을 들지 못하는 저 담징대사는 아무래도 수상하다. 승적도 없는 건달승이 아닌가. 채색이나 종이, 먹만드는 법은 알지만 그림재간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

이는듯 하였다. 그리고 그 언제인가 그와 함께 고달픈 먼길을 걸을 때 들쭉이 활짝 핀 산등을 넘으며 《우리는 고구려사람이다. 그러나 부처를 믿어도 고구려를 위해 믿어야 한다. 부처만 알고 제 나라를 모른다면 부처의 종일뿐 고구려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던 담

지와 자부심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백제와 신라의 여러 절을 순례하면서 고구려의 웅건한 불교예술의 묘미를 가르쳐주기를 1년, 다시 왜나라로 건너와 왜나라의 승려들과 공인들에게 종이와 채색, 먹제조법을 배우주고 고구려의 발전된 기술로 왜나라에 문화

던 왜나라의 백성들은 담징을 《새로 온 고구려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존경과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 짧지 않은 나날들을 함께 보내면서 모든 일을 직접 감독한 범정은 담징의 천재적인 재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담징의 말이 문득 귀에 울려오는듯싶었다. 저러한 담징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범정은 담징과 함께 고구려를 떠난 후 오늘까지 세 해 가까운 기간을 지내으면서 그의 고매한 기품과 가슴속에 고이 간직된 대고구려의 아들이라는 끝없는 긍

의 밝은 빛을 던져주기를 거의 2년! 짧은 기간이 아니었고 적은 일들이 아니었다. 더우기 얼마전에 전애라는 기계매를 만들어 왜나라 사람들을 경탄시키던 일은 영원히 잊을수 없었다. 물의 힘으로 제철로 돌아가며 망질을 하는 전애를 보

두릅김치

두릅으로 담근 김치는 시원하고 감칠맛이 있으며 건강에도 아주 좋다. 두릅김치에는 비타민, 광물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항암작용, 혈당낮추작용, 항암작용이 있으며 중추신경에 대한 흥분 및 강장작용에도 효과가 있다.

은봄무우는 큼직큼직하게 썰는다. 다음 다진 파와 마늘, 생강, 고추가루를 두고 버무려 단지에 넣는다. 두릅을 데친 물은 발아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단지에 부어 김치를 익힌다. 이렇게 하면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두릅김치가 만들어진다.

또한 사포닌이 있어 가래를 삭이고 기침을 멎게 한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두릅 33g, 당근 5g, 소금 10g, 붉은 봄 무우 100g, 고추가루 5g, 다진 파 20g, 다진 생강 5g을 준비한다. 두릅은 끓는물에 살짝 데쳐내고 볶



절약과 랑비

어느날 저녁 안해가 불을 켜다가 성냥 한가치를 떨어뜨렸다. 남편은 큰 번이나 난듯이 안해보고 성냥불을 밝히려 고 하더니 떨어진 성냥가치를 찾아다녔다.

성냥 한팩을 다 그어서야 겨우 떨어진 성냥가치를 찾았다. 남편은 그 성냥가치를 들고 안해에게 혼신했다. 《살림을 이렇게 해야 잘 살수 있단 말이요!》